

## 월터스토프의 정의론

최태연 (백석대)

### 1. 들어가는 말

윤리학과 정치철학의 중요한 주제인 ‘정의’(justice)의 문제를 기독교철학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한 현대의 기독교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1932~)를 언급하고 싶다. 1980년대 이후 이 주제를 다룬 그의 연구서는 다섯 권에 달한다.<sup>1)</sup> 월터스토프는 현대 영미 분석철학자 중에서 기독교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원래 그의 전문 연구 분야는 윤리학이나 정치철학이 아니었다. 원래 그의 연구 분야는 주로 형이상학과 인식론, 그리고 미학이었다.<sup>2)</sup> 그러나 특정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를 이 주제에 깊이 몰입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자전적 고백에 의하면 정의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1975년 그가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그곳 흑인들과 유색인들의 외침을 듣고 나서 시작되었다.<sup>3)</sup> 그 결과 1980년 이후 그의 저작 활동 중에서 정의문제와 사회참여 문제는 그의 철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실천적 문제의식은 철학을 넘어서 교육학과 신학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sup>4)</sup>

이 글에서 필자는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의 윤곽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필자의 월터스토프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라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이 글에서는 다만 정의론에 관한 그의 저서 세권 - 『정의: 옳음과 그름』 (*Justice: Rights and Wrongs*), 『사랑과 정의』 (*Justice in Love*), 『하나님의 정의』 (*Journey toward Justice: Personal Encounters in the Global South*) - 을 참고하

- 
- 1) -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3. 『정의와 평화가 입을 때까지』,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07.  
- *Justice: Rights and Wrong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정의: 옳음과 그름』  
- *Justice in Love*. Grand Rapids: Eerdmans. 2011. 『사랑과 정의』,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17.  
- *Understanding Liberal Democracy: Essays in Political Philosophy*, (ed. Terence Cune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Journey toward Justice: Personal Encounters in the Global Sout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하나님의 정의』, 배덕만 옮김,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 2) *On Universals: An Essay in 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6; *Works and Worlds of Art*. Oxford: Clarendon Press. 1980; *Art in Action: Toward a Christian Aestheti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0.
  - 3) 켈리 제임스 클락, 『기독교철학자들의 고백』, 양성만 옮김, 서울: IVP, 2017, 71.
  - 4) *Educating for Responsible Ac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0; *Religion in the Public Square* (with Robert Audi).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7; *Educating for Life: Reflections o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4; *Practices of Belief: Selected Essays*, Volume II. (ed. Terence Cune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The Mighty and the Almighty: An Essay in Political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여 그의 정의론의 윤곽을 그리면서 그의 정의론의 의미와 현대철학에서의 위상을 언급하는데 만족할 것이다.

## 2. 정의 논의의 출발점

정의에 대한 월터스토프의 논의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이 점이 그의 정의론의 모든 방향과 특징을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그의 정의론은 ‘억압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편에 서라는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출발했다. 그래서 그의 정의론이 최초로 신학적으로 형상화된 저서인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1983)에서 ‘억압과 착취에서의 해방’을 추구하는 해방 신학자들을 통해 ‘신칼뱅주의’ 개혁주의자들의 결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sup> 당시의 개혁주의 크리스천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점이 월터스토프 정의론의 독특한 점이다. 그러면 그의 정의론의 이론적 구성을 살펴보기 전에 이 논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출발했고 이미 그에게 성경적 정의관에 대한 선이해 속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음을 밝혀 볼 것이다.

### 2.1 ‘억압받는 이들’과의 만남

월터스토프는 2013년 출간된 그의 저서 『하나님의 정의』(*Journey toward Justice: Personal Encounters in the Global South*)의 첫장을 이렇게 시작한다.

1975년 9월, 나는 당시에 가르치던 칼빈 대학의 지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 대학교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그 대학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차로 한 시간쯤 떨어진 작은 도시 포체프스트룸에 소재하고 있었다. 당시에 그 학교는 분명하고 세심하게 아프리카너 전통에서 있었다. 아프리카너가 아닌 백인들도 학생으로 입학이 허용되었지만, 소위 흑인과 유색인은 그렇지 못했다. . . 결국 남아공 출신의 흑인과 유색인 학자들이 분노보다 상처의 목소리로(당시에는 내게 그렇게 보였다)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그들에게 쏟아지는 치욕, 그리고 그들이 모욕당하는 여러 방식을 묘사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반투스탄으로 내몰린 상황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거대한 열정으로 정의를 외쳤다. 나는 이런 정의를 향한 외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나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흑인과 유색인들이 연설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나는 그런 불의의 희생자들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sup>6)</sup>

그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주었던 남아공에서의 각성 체험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그에게 다가옴으로써 그는 억압받는 이들의 ‘정의에 대한 거대한 열정’을 더

5) “다른 한편, 해방론자들의 분석은 신칼뱅주의 분석이 안고 있는 중요한 결함을 바로잡아 준다. . . 따라서 그들[신칼뱅주의자들]은 성장이라는 이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전략을 제시하지만, 스스로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려고 싸우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해방 없이는 개혁도 없다. . . 우리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해를 입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야 하고, 그것은 곧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억압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와 연대를 선언하는 일이다.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한 쪽 편을 드는 것이다. 그리고 연대의 선언이 진지하다면, 해방의 행위가 흘러나올 것이다. 해방 신학자들은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보았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07, 139-140.

6)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31-33.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1978년 5월, 나는 시카고 서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의 권리에 대한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나는 왜 초대되었는지 몰랐고, 왜 참석했는지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대회는 '팔레스타인 인권운동이란 단체가 후원했다. 약 1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참석했으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격렬한 언어로 자신들의 한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의 매일 당하는 모욕에 대해 설명했다. 자기 조상들의 땅과 과수원들이 어떻게 강탈당하고, 유대인 정착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그들이 어떻게 집에서 추방당하고, 집이 불도저로 허물어졌는지 말이다. . . 그들은 정의에 대한 거대한 열정으로 부르짖었고, 나는 그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일체의 적절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sup>7)</sup>

그는 이 두 경험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사실은 이미 그의 정의론은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출발한 신학적 성격이 강함을 알려준다.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그의 공감과 책임감은 사실 이 두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40여년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개혁주의 신자로서 그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연유인지 그는 앞에서 언급한 정의에 관한 세 책 모두에서 성경의 정의개념을 그의 정의론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 2.2 성경의 정의개념

월터스토프는 성경이 정의에 관한 어떤 정의(definition)나 이론(theory)를 제공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justice)인 미슈파트(mishpat)와 체다카(tsedaqah)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특히 구약은 정의가 하나님의 강렬한 요구라고 여러 곳에서 말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그런데 구약이 말하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정의는 힘없고 천대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출애굽기 24:17)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이사야 1:17)

월터스토프에게 구약의 정의는 이미 해방 신학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7)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34-35.

이라고 부르는 약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과 배려를 보여준다. 이어서 월터스토프는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정의로 보는 구약의 명령이 신약에 와서 아가페적 사랑의 명령으로 대치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sup>8)</sup> 그는 신약윤리의 근본적 성격이 ‘새 창조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점에서 ‘종말론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의(dikaiosyne)의 윤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신약의 구절을 복음서에서 찾는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 .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누가복음 4:19)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가복음 25:40)

이처럼 월터스토프에게 성경의 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억압과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의론의 정신적, 종교적 원천을 제공한다.

### 3. 이상세계 정의론과 거리두기

월터스토프는 미국의 자유주의 정의 논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롤즈의 정의론의 문제점을 이상적 이론(ideal theory)의 정립을 추구한 것이라고 본다. 그의 정의론은 플라톤에서 롤즈로 이어지는 ‘이상세계를 위한 기본적 정의론’을 추구하는 전통과 다르다. 그는 1971년 존 롤즈의 『정의론』 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서술한다.

이제는 고전이 된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이 1971년에 출판되었다. 그 책의 출간과 함께 쏟아진 찬사와 관심 때문에 나는 그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다. 정치철학과 윤리는 내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지적인 호기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롤즈의 책이 지적으로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그 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부 논쟁에 심취했다. 하지만 나 스스로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만큼 감동을 받지 못했고 정의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자극도 받지 못했다.<sup>9)</sup>

이 진술을 보면 1970년대 전반까지도 월터스토프는 윤리학이나 정치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자신의 학문적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조직적으로 학대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에 자극을 받아”<sup>10)</sup>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월터스토프는 이 점이 정의론에 접근하는 롤즈와 자신의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에서 롤즈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상세계를 위해 기본적 정의론을 발전시키는 전통’<sup>11)</sup>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의 논의를 시작한다.

8) 월터스토프는 20세기 중반 유럽 신학계에서 영향력 있던 작품 『아가페와 에로스』에서 “예수가 뜻했던 아가페는 정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상의 자기희생적 자애”였다는 스웨덴 신학자 안데르스 니그렌(Anders Nygren)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132)

9)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36.

10)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37.

11)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65.

롤즈와 거리를 두면서 월터스토프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추상적으로 일반화시킨 사람들의 정의를 추구하지만 가까이 있는 실제적인 사람들의 정의, 특히 ‘조직적 불의의 희생자’의 정의를 돌보지 않는 태도를 ‘값싼 자유주의’라고 비판한다.<sup>12)</sup> 더 나아가서 그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의 본질과 목적’을 연구하는 ‘기본적 정의론’과 현존하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갈등과 불의에 대한 ‘반응적 정의론’을 결합하려고 했던 롤즈의 시도를 ‘치명적 오류’라고 생각한다.<sup>13)</sup>

월터스토프는 롤즈에 반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첫째로 정의론은 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의 배분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데 한정되지 않는다. 개인들 상호간에서 일어나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둘째로 잘 정돈된 이상적인 사회에서 분배정의를 만들어 내는 사회제도가 정돈되지 않은 실제 사회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월터스토프가 롤즈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liberalism) 이념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롤즈의 정의론 역시 일종의 ‘자연적 생득권 이론’(an inherent natural rights theory)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롤즈는 생득권의 존재를 단순히 전제하고 그 권리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을 뿐이다.<sup>15)</sup> 그는 『사랑과 정의』에서 기독교적 아가페주의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아닌 도덕적 기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반은 국가로부터 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자유권(freedom rights)에 대한 인정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집회와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고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는 이 자유권에서 나오며 시민사회 안의 공존하는 공동체들의 이론 ‘특정한 연합’을 통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월터스토프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자유권이 기독교 아가페주의자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토대라고 생각한다.<sup>16)</sup>

#### 4. 생득권(inherent rights)에 근거한 정의

도대체 월터스토프는 철학자로서 어떤 정의론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정의론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출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천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의는 현대철학의 정의론의 개념으로 어떻게 서술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월터스토프는 정의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득권, 즉 ‘타고난 권리’(inherent rights)를 이해하는 일이 정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

##### 4.1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주의(eudaimonism) 비판

그의 권리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월터스토프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행복주의

12)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47-48.

13)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61.

14)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61-62.

15) Nicholas Wolterstorff., *Justice: Rights and Wrong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15.

16)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사랑과 정의』, 414-418.

(eudaimonism)와 거리를 둔다. 행복주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인 최고의 선(좋은)을 ‘행복’(에우다이모니아)에서 찾는다. 이 행복은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기에게 적합한 최상의 상태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조화와 절제를 통한 중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꼭 필요한 능력이 ‘실천적 지혜’(phronesis)라고 보았다.

따라서 행복주의자에게 삶의 행복은 한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상태의 현저한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자의 처지에 맞게 타월하고 적합하게, 즉 사려깊게 행동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 이 점이 윌터스토프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바로 결정적인 이유다. 윌터스토프는 비판적인 의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인간의 좋음은 결국 미덕에 걸맞은 혼의 활동이며, 미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전한 미덕에 걸맞은 혼의 활동이다. 그런 혼의 활동은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한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하루아침에 봄이 오지 않듯, 사람도 하루아침에 또는 단기간에 행복해지지 않는다.<sup>17)</sup>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윌터스토프는 좋은 삶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전한 미덕에 걸맞은 혼의 활동’에 의해 다가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가?’라는 구약의 질문이 좋은 삶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8)</sup> 즉 어떤 행위를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보다는 고통과 비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인간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삶 내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길이다. 따라서 윌터스토프는 행복주의 대신 권리이론을 자신의 정의론의 핵심개념으로 요청한다. 다음 말들은 그가 행복주의 대한 결론을 맺으면서 내리는 결론이다.

권리이론은 어떤 사람의 가치가 특정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인격의 가치에 대한 이념을 필요로 한다. 행복주의자들은 단지 좋은 삶(life-goods)의 가치와 그 조건과 수단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그 이론의 도식에는 인격과 인간 존재의 가치를 위한 자리는 없다. 그들이 좋은 삶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 좋음들이 행위라는 사실과 우리 각자는 그 행위들 가운데서 자신의 행복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에 두어야 하는 목표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 . 따라서 여기에는 자기들을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는 타인들에 맞서서 우리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다.<sup>19)</sup>

#### 4.2 율피아누스적 정의(justitia)의 채택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윌터스토프의 정의 논의는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는 정의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존중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정의(justice)는 권리(rights)에 근거한다. 이 권리는 모든 사람이 타고난 권리, 즉 생득권(inherent rights)이다. 윌터스토프는 이 권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로

17)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8a 16-19 (천병희 옮김, 제2판, 서울:숲, 2018, 39에서 인용); Nicholas Wolterstorff, *Justice: Rights and Wrongs*, 152.

18)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사랑과 정의』, 28.

19) Nicholas Wolterstorff, *Justice: Rights and Wrong*, 179.

마의 법학자 율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170?~228)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단락에서는 그의 정의 개념의 철학적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율피아누스적 정의의 성격을 해명해 보자.

율피니아누스에 따르면 정의(iustitia)는 ‘각 사람에게 그들의 권리 또는 몫(ius)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지’다.<sup>20)</sup> 따라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일이다. 율피니아누스는 권리를 소유(possess)하는 것과 권리가 제공(render)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연결했다.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를 소유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모욕당할 때, 그 권리가 그에게 정당하게 제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having a right to X)이다.

윌터스토프는 율피니아누스의 권리 개념을 현대의 법률 개념의 도움으로 조금 더 분석적으로 구분한다. 학대받은 사람은 원래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소유한다. 그러나 그가 학대받을 경우 그를 학대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것이 ‘허용권’(permission rights)이다. 동시에 학대받은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학대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처벌하도록 요구하고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청구권’(claim rights)이다. 어떤 사람이 타인에 의해 학대받는다면 학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허용하는 허용권과 처벌받도록 요구하는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 윌터스토프는 이 두 권리를 묶어서 ‘반응적 권리’(reactive rights)라고 부른다. 반응적 권리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원래 마땅히 소유한 ‘기본권’(primary rights)이 무시되거나 부정될 때 생겨난다. 반응적 권리에 상응하는 정의가 ‘반응적 정의’(reactive justice)고 기본적 권리에 상응하는 정의가 ‘기본적 정의’(primary justice)다.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기본적 정의를 지키려는 실천과 그 기본적 정의가 깨어짐으로써 발생한 불의를 바로잡도록 하는 반응적 정의를 실천하는 일 모두를 포함한다.<sup>21)</sup> 윌터스토프는 율피니아누스의 정의개념에서 출발하여 권리 개념을 분석한 후, 나와 타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상관성 원리에 대해 언급한다.

#### 4.3 상관성 원리(principle of correlatives)의 타당성

윌터스토프는 이 개념을 통해 권리 개념의 본질에 들어있는 사회성의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를 ‘상대로’(against) 권리를 지닌다는 뜻이다. 이 누군가는 나 자신일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타인이다. 따라서 나의 권리는 나와 타인 사이의 ‘규범적 유대’(normative bond)를 전제한다. 상관성 원리는 이 규범적 유대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윌터스토프는 상관성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sup>22)</sup>

B가 A에 대해 X를 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는 B를 상대로 ‘B가 X를 행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형식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구약의 예를 들어보자. 다윗이 사울에 대해

20) Nicholas Wolterstorff, *Justice: Rights and Wrong*, 22.

21)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56-58.

22)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사랑과 정의』, 162.

살려줄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울은 다윗을 상대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 정의는 A가 B로부터 X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B가 A에 대해 X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함으로써 권리라는 단어를 의무라는 단어로 바꾸었을 뿐 결국 동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월터스토프에게 이 상관성 원리가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함의는 타인의 권리가 상관관계에 있는 나에게 ‘최종적 또는 절대적’(peremptory) 힘을 가진다는데 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당신에게서 특정한 방식으로 대우받는 ‘삶-선’을 누릴 권리가 내게 있다면, 그것도 잠정적 권리가 아니라 최종적 권리가 있다면, 내게서 그 선을 빼앗음으로써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아무리 많은 선이 찾아온다 해도 당신은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안 된다. 상관성 원리에 의해,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대우받는 삶-선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삶-선은 다른 모든 삶-선보다 우선한다.<sup>23)</sup>

타인의 권리가 나에게 최종적이고 절대적으로 명령하는 힘을 갖는다는 월터스토프의 주장은 프랑스의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Emmanuel Levinas)가 주장하는 나와 타자 관계의 ‘비동등성’의 원리와 맞닿아 보인다.

나와 타자의 관계는 항들의 비동등성 속에서 시작한다. 이 항들은 다른 항에 대해 초월적이다. 이 관계에서 타자성은, A에 대한 B의 타자성이 단순히 A의 정체성과 다른 B의 정체성에서 생겨난다는 것과 같이 타자를 형식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타자의 타자성은 타자가 지닌 정체성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자의 타자성이 그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즉 타자는 타인이다. 타인으로서의 타인은 높음의 차원과 낮아짐 - 영광스러움과 낮아짐 - 의 차원에 자리한다. 타인은 가난한 자, 낮은 자, 과부와 고아의 얼굴을 지니는 동시에 나의 자유를 서임하고 정당화하도록 요청받은 스승의 얼굴을 지닌다.<sup>24)</sup>

나의 의무에 대한 타인의 권리의 절대성은 바로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타자성’이 주체인 나에게 우월한 지위를 갖는 비동등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이 상관성 원리를 범하고 깨뜨릴 때, ‘반응적 정의’(reactive justice)의 문제가 등장한다. 반응적 정의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부정한 사람에 대한 용서와 처벌이 문제가 된다.

#### 4.4 용서와 처벌의 정당성

월터스토프는 『하나님의 정의』의 뒷부분에 와서 ‘정당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온두라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과 해고의 현실을 관찰하고 온 후, ‘정당한 처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처벌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을 피한다. 하나는 모든 악행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의 최후심판에 맡기는 내세신학(otherworldly theology)이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악행에 대한 보복적(retributive) 처벌의 이론이다. 내세신학은 하나님이 범죄자들을 최후심판의 법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 세상에서의 학대를 인내하며 견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는다. 이 세상의 정부 역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의를 견딜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보복적 처벌이론에서는 악행이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선과 악

23)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사랑과 정의』, 163-164.

24) 378.

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복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것은 악행에 대한 빛을 갚는 일이며 되갚음으로써 선과 악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 경우 저질러진 악행의 크기 만큼 보복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보복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며 복수의 성격을 띤다. 월터스토프는 정당한 처벌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복적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도바울을 통해 신약에서 제시된 악에 대한 처벌을 ‘책망적’(reprobative) 처벌이라고 부른다. 책망은 처벌받는 사람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 행하는 처벌이다. 정부가 정의롭고 효과적인 사법체계를 통해 불의를 억제하고 정의를 복돋우는 노력은 공적인 의미의 책망적 처벌이다.<sup>25)</sup>

월터스토프가 말하는 책망적 처벌이 보복적 처벌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용서’(forgiveness)에 있다. 그러나 그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다. 그에게 용서는 회개와 쌍방관계에 있다. 나에게 악행을 저지를 사람을 용서하려면 먼저 그 악행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악행은 비난받고 처벌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더 이상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다. 그를 더 이상 미워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화해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악행을 회개해야 일어날 수 있다. 월터스토프는 악행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도덕적인가라고 묻는다. 그래서 그는 리차드 스윈번(Richard Swinburne)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그 악행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사과의 형태로나마 어떤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희생자가 [그 행위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sup>26)</sup>

## 5. 정의의 미적 차원과 종말론적 차원

마지막으로 월터스토프가 언급하는 정의의 미적 차원과 종말론적 차원을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그는 아프리카 케냐의 어느 선교사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주변 언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선교사 주거의 누추함이 보여주는 대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상한다. 율피아누스의 정의대로 정의(justice)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권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지’라고 한다면 그 권리에는 최소한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만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감각적인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는 환경에서 살도록 방치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타고난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월터스토프에게 미적인 향유는 선택적 사치가 아니라, 인권에 속하는 필수 조건이다.<sup>27)</sup>

마지막으로 월터스토프는 이 땅에서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의론에는 완성에 대한 희망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이 희망은 역사 속의 희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희망이다. 왜냐하면 그 희망은 “역사를 초월하는 행복한 상태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와 다르다. 프랑스의 법학자 자크 엘월이 말한대로 이 희망은 인간 행동의 어리석음과 헛됨을 깨우쳐 주면서 동시에 역사의 종말에 대한 비관주의를 넘어서게 하는 희망이다. 이 희망은 우리 인간 자신의 잠재력에 근거를 둔 희망이 아니고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이다. 기독교 정의론이 갖는 이 희망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력한 내세주의에 빠지지 않

25)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282-284.

26) Richard Swinburne, *Responsibility and Atone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85-86.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309에서 재인용.)

27)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322.

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다가 겪는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sup>28)</sup>

##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월터스토프의 정의에 관한 논의의 윤곽을 그리고자 했다. 그 결과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생득권(inherent rights)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월터스토프는 인권(human right) 개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점에서 그의 정의론은 보편윤리에 기초를 둔다.

둘째,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의 보편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그 강조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의 정의론은 ‘이상세계를 위한 기본적 정의론’을 추구하는 전통과 거리를 둔다. 이 점에서 월터스토프는 레비나스나 파커 파머<sup>29)</sup>나 수잔 손택<sup>30)</sup> 등의 약자 중심의 윤리적 입장에 접근한다.

셋째,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은 처벌과 용서의 문제에 대해 기독교 현실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은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세계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약자중심의 윤리학이 결합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정의론에서도 독특한 입장인 그의 논의를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발전적으로 보완할 여지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옮김, 제2판, 서울: 숲, 2018.  
에마누엘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김도형, 문성원, 손영창 옮김, 서울: 그린비, 2018.  
켈리 제임스 클락, 『기독교철학자들의 고백』, 양성만 옮김, 서울: IVP, 2017.  
Nicholas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3.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07.  
Nicholas Wolterstorff, *Justice: Rights and Wrong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Nicholas Wolterstorff, *Justice in Love*. Grand Rapids: Eerdmans. 2011. 『사랑과 정의』,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17.  
Nicholas Wolterstorff, *Journey toward Justice: Personal Encounters in the Global Sout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하나님의 정의』, 배덕만 옮김, 서울: 복있는 사람, 2017.

28)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341-342.

29) 파커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옮김, 서울: 글항아리, 2012.

30) 수잔 손택, 『타인의 고통』, 이재원 옮김, 서울: 이후, 2007.

